

나주 공동혁신도시 오늘 첫삽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8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공식은 지난 9월 제주 서귀포와 지난달 경북 김천, 경남 진주에 이어 4번째이며

2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생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기공식에는 정부 관계자와 주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 축하 공연과 기념발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공식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전남도 2개 광역단체가 공동 추진하

는 점을 강조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공연도 함께 벌어진다.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 5천㎡(220만평)에 건설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파연구소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는 주민들이 행정·방재·환경·치안 등을 각종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가족 친화적 도시로 조성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0년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5면)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8일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권을 연결하는 무안~광주 고속도로 중 무안~나주 구간(30.4km)이 무안공항과 함께 조기 개통된다. 함평군 함평을 부근을 통과하는 무안~나주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있다. /함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오늘 개항

착공 8년만에...광주~무안 고속도로 나주구간 개통

국토 서남권의 대 중국·동남아 관문이 될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1999년 말 착공 후 8년 만인 8일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는다.

이날 무안국제공항 개항식에 이어 광주권과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광주~무안고속도로 중 무안~나

주(30.4km)간 개통식도 함께 열린다. 무안~광주고속도로 전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전 개통된다.

(관련기사 3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공항 현지에서 열리는 개항식은 경과보고 및 비전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귀빈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식후행사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무안국제공항은 부지면적 2천 567㎡에 사업비 3천56억원이 투입됐고 2천800㎡의 활주로 1개, 항공기 9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계

류장 9만여㎡, 차량 2천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공항시설 규모로는 인천, 김해, 제주, 김포에 이어 5번째다.

무안공항에서는 개항과 동시에 9일부터 무안~상하이(동방항공·매일 1회), 무안~창사(남방항공·주 2회) 등 국제선이 주 9회 운항된다.

한편 8일 개통되는 무안~나주간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 12월 공사에 착수, 총 4천71억원이 투입됐으며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춰 조기 개통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72세 이회창 '3修' 등록

어제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대선판도 요동

한·범여 "시대역행" 비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우세국면으로 진행됐던 대선 구도는 이 전 총재의 출마로 인한 보수세력의 분열과 범여권 세력의 결집 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그동안 몸 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대선 패배 후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대해 진심으로 앞뒤 사죄드리고 용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 그는 "정말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



하는 지도자만이 국민의 신뢰와 힘을 모을 수 있으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은 한나라당 후보의 이 같은 점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떤 경우에도 정권 교체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제가 좌절시키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면서 "만약 제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국

민적 판단이 분명해지면 저는 언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막판 이명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출마 선언과 함께 ▲헌법 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 ▲대북정책 및 외교 정책의 근본적 재정립 ▲국가기강 수립 ▲따뜻한 시장경제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 선언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집중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이 전 총재에 대해 "대권병에 걸린 제2의 이인제"라고 맹비난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범여권도 이 전 총재를 향해 "극우세력의 마지막 몸부림"(민주신당), "개인적 한풀이"(민주당), "시대의 코미디"(민주노동당), "부패세력의 등장"(창조한국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전군표 국제청장 사표 수리

후임 한상률 차장 유력...빠르면 이번주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군표 국제청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호선 대변인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 청장의 영장발부 관련 보고를 받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후임 국제청장 인선

작업은 오늘 오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며 "검증 과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후임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임 청장은 국제청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조직 개혁 차원에서 외부 출신을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출신으로 기용할 경우 한상률 국제청 차장의 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오대식 서울지방 국제청장, 권춘기 중부지방 국제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외부 출신을 발탁할 경우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공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전화: 10621220-0541

유망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innisfree